

제4장 통일신라시대

서기 660년 신라와 당은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 백제를 공격하였다.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끈 백제의 결사대를 격파한 후 사비성으로 진출하였고, 소정방이 이끈 당군은 금강 하구를 통하여 사비성으로 침입하였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백제를 멸망시킨 후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정치 불안에 시달리던 고구려도 결국 서기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로써 신라는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되었고, 통일 신라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1.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와 보령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결국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를 두고, 고구려의 옛 땅에는 안동 도호부를 두어 지배하려 하였다. 또한 경주에도 계림 도독부를 두어 신라 귀족의 분열을 획책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나당 전쟁을 통하여 당군을 축출하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서기 676년). 통일 후 신라는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중앙의 정치체제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관료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 정치체제도 통일과 함께 늘어난 인구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의 지방 통치체제는 신문왕 5년(685)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된다. 이 당시 보령지역은 신라의 9주 중에서 웅주(熊州)에 편입되었으며, 당시 군현 명칭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사포현과 신촌현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경덕왕 16년(757) 군현의 대대적인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지방 통치체제는 완전히 정비되었다. 이때 보령 지역은 전국 9주 중 웅주의 관할 하에 있게 되었으며, 사포현은 남포현(藍浦縣)으로 개칭되어 서림군(西林郡)의 영현이 되었고, 신촌현은 신읍현(新邑縣)으로 개칭되어 결성군(潔城郡)의 영현이 되었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는데, 주에는 도독(都督), 군현에는 태수와 현령이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백제시대의 군현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을 채택한 것은 보령 지역의 재지 토착세력의 지역성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제적인 의식이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신라적인 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군현 아래에는 촌(村)이라 불리는 작은 행정구역이 있어 촌주(村主)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며 중앙의 통치를 대행하였으나, 보령 지역에서는 촌주의 통치와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남포현의 중심지는 백제시대의 사포현과 동일한 장소인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로 추정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에도 해상관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신읍현도 백제시대의 신촌현이 있던 주포면 보령리의 구성재 부근일 것으로 짐작된다.

『성주사 사적기』의 성주사 건물 기록을 보면 전단림(梅檀林) 9간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전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전단은 유향목재(有香木材)로 동남아의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었다. 자단(紫檀)이라 불리는 이것은 흥덕왕 때 수입을 금지한 사치품이었다. 이러한 전단으로 지은 건물이 성주사에 있었다는 것은 귀족이나 지방 호족의 해상 관문으로 남포의 역할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멀리 떨어진 동남아에서 이러한 물자가 유입되어 오는 방법은 해상 운송 수단에 의지해야 되고, 그것이 해상으로 성주사에 들어오려면 가까운 곳에 대외 진출입이 용이한 포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성주사의 대외관문이 남포, 즉 오늘날의 웅천천 하구라고 할 수 있다.

남포현 치소의 위치는 성주사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웅천천 하류지역인 웅천읍 수부리 수안에 있었다. 이 지역은 남포현 지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속하며 차령산맥에서 뻗어 나온 줄기가 서남쪽으로 가면서 산세가 낮아지면서 서해에 닿고 있다. 서북부는 잔미산이 이 지역을 옹위하고 있으며, 남부는 동막산 운봉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고, 그 중심부는 보령지역 최대의 웅천천이 곡류 하면서 비옥한 퇴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하구는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농경지로 변화하였지만 서해와 연결된 천혜의 포구를 형성하였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수운교통의 편리, 방어기능의 최적조건, 농경생활의 편리 등으로 과거부터 인류생활의 중심지가 되어 왔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 寺浦, 藍浦라는 지명도 단순한 포구에 불과했다기보다는 백제말기 오합사(烏合寺)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백제왕실의 원찰(願刹)이 되었고, 신라 선문구산(禪門九山)의 하나로 호서지역 불교문화를 크게 진작시킨 성주사(聖住寺)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적 기능과 통일신라 대외진출 역할을 수행하던 인상 깊은 장소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김인문(金仁問)과 오합사

백제 멸망 이후 오합사는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을까? 오합사가 자리 잡은 북악(北岳)은 백제에서의 5악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였지만, 통일신라기에 새로이 정비된 사전체제(祀典體制) 속에서 중사(中祀)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오합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특히 김인문과 관련된 귀족사원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김인문(金仁問 629~694)은 신라 삼국통일기의 장군·외교관으로,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며,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의 친동생이다. 651년(진덕여왕 11) 당나라에 숙위(肅衛)로 파견되었고, 660년에는 소정방(蘇定方)을 도와 백제정벌군을 지휘했다. 백제를 정벌한 뒤 당나라로 돌아가 숙위를 계속하다가 668년에 이적(李勣)의 당나라군과 함께 다시 고구려 정벌에 나서 평양성을 함락,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때 대각간(大角干)의 벼슬을 받았으며,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 숙위로 머물면서 양국의 분쟁을 조정했다. 674년 신라가 당나라의 야욕에 저항하여 노골적인 대당항쟁을 전개함에, 당나라가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세우고 쳐들어오자 문무왕은 형식상 사죄사를 보냈고, 김인문도 도중에서 돌아가 임해군(臨海君)에 봉해졌다. 오합사가 이러한 김인문과 관련된 사원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다음의 기록이다.

(무염대사가) 이에 북쪽으로 떠나 헤아리고 눈여겨보아, 終生토록 몸 붙일 곳을 골랐다. 때 마침 왕자 김흔(金昕)이 벼슬을 그만두고 산중재상(山中宰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왕자 흔이 이르기를 “大師와 저는 함께 용수(龍樹) 걸찬(乙粲)을 조상으로 하는데, (중략) 웅천주(熊川州) 서남쪽 모퉁이에 한 절이 있는데, 이는

나의 선조이신 臨海公(金仁問, 당에서 고구려를 정벌한 공의 대가로 臨海君公에 봉하였다.)
께서 봉지(封地)로 받은 곳입니다. (최치원 『성주사대낭혜화상백월보광담비』)

이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멸망 직후인 668년 당에 의하여 임해군공에 봉해진 김인문이 오합사가 있는 웅천주 지역을 봉지(封地)로 받았다는 것이다. 즉 김인문이 오합사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웅천주 지역을 봉지로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668년 김인문이 웅천주 지역을 봉지로 받게 된 것은 당의 대신라정책(對新羅政策)과 깊은 관련이 있어 주목되는 현상이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옛 백제 지역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신라와 대립을 벌이고 있었다. 당은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옛 백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은 옛 백제 지역을 자기 영토로 편입하려고 하는 신라에게 수시로 압력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라 지배세력내의 내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소정방에 의해 제안된 전공자(戰功者) 식읍안(食邑案)이었다. 옛 백제 지역을 김유신, 김인문, 김양도 세 사람에게 식읍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665년 김유신은 당으로부터 식읍 2,000호, 666년에는 김인문이 식읍 400호를 받게 되었다. 이어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전공자에 대한 논공행상을 하게 되는데, 당은 논공행상을 통하여 신라 귀족의 분열을 계속적으로 꾀하였다. 668년 문무왕이 김인문에게 식읍 500호를 주자, 당 역시 그를 임해군공에 봉하며 김유신과 마찬가지로 식읍 2,000호를 주었다. 그것도 옛 백제 지역인 웅천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식읍사여정책 등 당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한 신라는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추진하여 669년 나당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것은 신라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당의 의도는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인문의 후손들이 오합사가 있는 웅천주 지역을 식읍으로 가지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일까. 이것은 나당전쟁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 변화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나당전쟁 이후 신라와 당은 사실상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지만, 문무왕 말기에 들어와서는 당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인문을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신라는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문은 외교나 군사면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룬 주인공의 한 사람이어서 그를 당에 그대로 놓아둘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무왕에게 있어서는 그의 동생인 김인문은 신라 중대 무열왕계의 왕권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강수(強首)가 작성한 외교문서를 통하여 그의 석방을 요청하였던 문무왕은 대당관계 개선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신문왕대까지 이어져서 결국 신라가 나당관계에 문제되었던 옛 백제지역 일부인 웅천주 김인문 식읍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당이 김인문 봉지로 주었던 오합사가 있는 웅천주 지역을 신라 역시 인정하였던 것은 한편으로는 옛 백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신라의 자신감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인문은 귀국하기 전에 당에서 사망하였다.

김인문의 귀국과 추선(追善)을 위해 노력했던 신라 중대(中代) 왕실은 경주에 인용사(仁容寺)를 세워 김인문의 원찰로 만들었으니, 김인문의 봉지에 속했던 오합사도 김인문의 원찰로 새롭게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백제시대 호국 사찰이던 오합사는 이제는 귀족의 원찰로 바뀌게 된 것이다.

3. 오합사와 김헌창의 난

김인문 사후 오합사와 김인문가(金仁問家)와의 관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오합사는 김인문 사후 중대말(中代末) 정치적으로 크게 활동한 김주원(金周元)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이 하대 김주원계의 활동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김주원은 김인문의 직계손으로 중대말기인 혜공왕 때 친족공동체세력으로 등장하여 시중(侍中)이 되었고, 상대등 김경신(金敬信)과의 왕위 계승전에서 패배하고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하면서 강원도 명주(溟州) 지방으로 퇴거한 인물이다.

김주원이 명주 지방으로 퇴거한 이후에도 그 자손 중 일부는 계속하여 원성왕의 직계손이 집권하고 있던 중앙에 남아 있으면서 왕위에 다시 도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헌창(金憲昌)과 그의 아들 김범문(金梵文)이었다.

김헌창은 바로 김주원의 아들로써 김주원이 퇴거한 뒤에도 의연히 중앙정계에 실력자로 활약하며, 시중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 뒤 웅천주 도독이 되자 마침내 헌덕왕 14년(822) 왕위쟁탈전의 한 형태로서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은 중앙정부에 독립을 선포하고 국가를 세워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진주(武珍州, 광주), 완산주(完山州, 전주), 청주(菁州, 진주), 사벌주(沙伐州, 상주) 등 4도독을 위협하고, 국원경(國原京, 충주), 서원경(西原京, 청주), 금관경(金官京, 김해) 등의 지방관을 복속시키고 있었다. 이로 보아 김헌창의 난은 충청 전라 경상 등의 광범위한 지역이 가담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내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난에 있어 주목되는 것은 김헌창이 난을 일으킨 웅천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의 연해안 지방에는 일찍부터 김주원과 같은 계통인 김인문의 직계손들이 토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이 난을 일으킨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 보령지역은 김인문의 봉지가 있었던 곳으로 그 장원은 김헌창의 난 후 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훗날 문성왕 9년(847) 선문9산과 가운데 하나인 성주산과를 개창할 때 그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은 바로 이 장원이었고, 당시 이 장원을 희사한 사람은 김흔(金昕)으로 김주원의 증손이었다. 그리고 성주산과의 개조 무염대사도 김인문의 7대손이었다. 그런데 무염은 고증조(高曾祖) 때까지는 장상(將相)으로 출입하며 장상호(將相戶)로 알려졌고, 조부때 와서는 진골관등으로서는 최하위인 대아찬(大阿漣)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범청(範淸) 때 와서는 6두품으로 족강일등(族降一等)된 가문의 출신이었다. 부(父) 범청 때 족강일등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그 범청이 김헌창의 난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을 추측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있다.

즉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 <만년에는 검술을 좋아했던 조(趙)나라 文王의 옛 일을 따랐다 (晩節追蹤趙文業).> 라는 문구에 대한 『문창집(文昌集)』의 주(註)에서는 <범청이 검사(劍士)를 좋아했는데, 만년에 김헌창이 모반하다가 살해되는 것을 보고 낙발입도(落髮入道)하였다> 는 것이다. 이로 보아 범청이 김헌창의 난에 연루된 것이 족강일등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염의 제자 중에도 김인문 계통으로 보이는 충남 연해안 지방 출신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여엄(麗嚴)과 이엄(利嚴)이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모두 무염의 제자였을 뿐 아니라 당에 가서도 두 사람 모두 운거도옹(雲居道膺)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돌아왔다. 그 가운데 여엄은 원래 경주의 진골귀족인 김씨였으나 선조(先祖) 때 충남 연해안 지방인 남포(藍浦)에 낙향하여 세거하고 있었으며, 이엄도 같은 경주김씨였으나 먼 조상 때 웅천주에 유락(流落)하였다가 부친 때 부성(富城, 서산)을 거쳐 소태(蘇泰, 태안) 지방으로 전전하고 있었다.

이로서 충남 연해안 지방에는 김주원과 같은 계통인 김인문의 직계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낙향하여 와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장원을 근거로 하면서 지방세력화 즉 호족세력화 되고 있어서 그 세력이 김헌창의 난과 연결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나아가 그 세력은 김헌창의 난이 진압된 뒤에도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어 성주산과 개창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오합사에서 성주사로

신라 하대(下代)에 들어오면 오합사는 822년에 일어난 김헌창의 난에 영향을 받는다. 김인문의 식읍이었던 웅천주를 거점으로 삼은 김헌창은 옛 백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세력의 커다란 호응을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 결과 오합사도 반란의 와중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성주사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

공간에 큰 화재로 인한 재앙을 입어 절이 반쯤 재가 되어 버렸는데, 어질고 명철한 분이 아니고는 누가 능히 없어져 버린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이 나이 들어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 머물러 주실 수 없겠습니까?

신라 하대에 오면 오합사가 화재로 인하여 절이 거의 폐허화 되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시기와 화재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김헌창의 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헌창의 난이 실패로 끝나자 오합사 역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산중재상 김흔(金昕)의 요청으로 무염이 폐허화된 오합사에 주석하고, 김흔의 종형제이자 정치 실력자 김양(金陽)이 후원하면서 다시 오합사는 중창되기에 이른다. 선종 사찰로서 그리고 신라 왕실의 웅천주 지역 통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찰로 거듭나게 된다. 승암산성주사사적기에

문성대왕이 자주 신필(神筆)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웅주는 바닷가에 접한 변방으로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거만스럽다. 짐이 꾸짖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선사가 이미 불법이 이미 뛰어나고, 도덕이 감당할 만하여 사람들이 저절로 선을 행하였다. 짐이 매우 기뻐 선도(禪道)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좌표로 삼기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차, 향 및 신물(信物)을 사시 끊이지 않게 하였다. 인하여 문성대왕은 조칙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오합사는 선사가 거처하는 곳이니 참으로 존엄한 곳이다. 마땅히 사액을 해야 할 것인데, 성주선원(聖住禪院)으로 사액하라”. 하였다.

이 자료에서 문성왕의 말은 당시 웅천주의 움직임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것은 김헌창의 난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문성왕 역시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한 백제 유민을 포함한 이 지역 지방세력의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흔과 김양의 후원으로 무염이 주석하게 되고, 문성왕의 사액으로 성주사가 된 오합사는

웅천주의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지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서 백제의 호국사찰이 김인문의 원찰로 되었다가 성주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백제 유민을 비롯한 지방 세력 통제 역할을 겸한 선종사찰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5. 선문9산과 성주사

신라 하대에 있어서의 불교계의 새로운 동향은 선종의 유행이었다. 선종은 통일 전후에 전래되었으나 교종의 위세에 눌려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귀족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는 변화에 발맞추어 크게 기반을 넓혔다.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는 달리 선종은 문자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실천수행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 성격이 강하였다. 즉 선종은 소의경전(所依經典)에 의하여 종파를 구별하는 교종과는 달리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 심성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종에서 주장하는 견성오도(見性悟道)는 불립문자의 다른 반대이었다. 견성오도의 방법은 선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고, 크게 깨우치면 산문의 개조(開祖)가 되어 독자적인 문파(門派)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교종 체제를 뒤엎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당시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개혁요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선종은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호족(豪族)의 이념적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종 승려들 중에는 지방의 호족 출신이 많았다. 그들은 다른 호족세력들과 결합하여 각 지방에 근거지를 두었다. 그중에서 9개의 선종사원이 9산선문이다. 선종은 중앙 귀족사회의 모순에 대한 혁신을 내세우며, 등장한 호족과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지방을 근거지로 성장하여 지방문화 역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선종승려들은 사회변혁을 희망하던 6두품 지식인들과 함께 새로운 고려사회 건설에 사상적 바탕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선문9산(禪門九山)과 대표적 부도〉

산 문(山門)	開山祖	현 위치	부도명칭(塔號)	비 고
가지산 보림사 (迦智山寶林寺)	도의 (道義)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보조선사창성탑 (보물 157호) (普照禪師彰聖塔)	868년 건립. 높이 4.1m. ※3祖체징(體澄)의 부도임
실상산 실상사 (實相山實相寺)	홍척 (洪陟)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증각대사응요탑 (證覺大師凝寥塔)	9c 후반 건립. 높이 3m, 보물 38호
동리산 태안사 (桐裡山泰安寺)	혜철 (惠哲)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寂忍禪師照輪淸淨塔)	861년 건립. 높이 3.1m. 보물 273호
사굴산 굴산사 (闍崛山堀山寺)	범일 (梵日)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	부도 부전(不傳)	통호대사(通曉大師)로만 알려짐, 폐사(廢寺),
성주산 성주사 (聖住山聖住寺)	무염 (無染)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	폐사(廢寺). 부도 파재로 수습 890년 건립
봉림산 봉림사 (鳳林山鳳林寺)	현욱 (玄昱)	경남 창원군 상남면 봉림리	진경대사보월능공탑 (眞鏡大師寶月凌空塔)	923년 건립. 높이 2.9m ※3祖진 경부도임, 현재 경북공에 이전
사자산 흥녕사 (獅子山興寧寺)	도윤 (道允)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철감선사탑(국보 57호) (澈鑿禪師塔)전남 화순 쌍 봉사에 있음	868년 건립. 높이 2.3m ※폐사(廢寺), 법흥사 세워짐
희양산 봉암사 (曦陽山鳳巖寺)	도헌 (道憲)	경북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	지증대사적조탑 (智證大師寂照塔)	883년 건립. 높이 3.41m 보물 137호
수미산 광조사 (須彌山廣照寺)	이엄 (利嚴)	황해도 해주시 학현동	진철대사보월승공탑 (眞徹大師寶月乘空塔)	북한에 있음

선문9산 중에서 호서지방에 선풍(禪風)을 선양한 것은 무염(無染, 800~888)이 김인문의 봉지(封地)인 보령지역에 개창한 성주산문이었다. 무염은 당에 가서 마곡보철(馬谷寶徹)로부터 심인(心印)을 받아 가지고 귀국하여, 문성왕 9년(847) 김흔(金昕)의 제의로 보령의 오합사에 주석하였다. 이어 문성왕이 오합사를 성주사로 사액하면서 성주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성주사에서 무염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번성하면서 9산선문 중 성주산문을 형성하게 되었고, 무염은 성주산문의 개조가 되었다.

당시 성주산문은 최치원이 지은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 의하면 문도(門徒)가 2,000인 이라고 하여 다른 산문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과 무염의 제자인 현휘의 탑비인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에 의하면 성주산문은 천하에 비길 데가 없었다고 한점으로 보아 9산선문 중에서 가장 번창한 것으로 보인다.

무염의 문하에는 당시 사선(四禪)이라 불렸던 순예(詢父), 원장(圓藏), 영원(靈源), 현영(玄影)이 있었고, 승량(僧亮), 보신(普慎), 심광(深光) 등의 2,000여 제자가 있었는데, 특히 충주 월광사(月光寺)의 대통(大通, 816~883) 양평 보리사(菩提寺) 여엄(麗嚴, 862~930), 충주 정토사(淨土寺)의 현휘(玄暉, 879~941), 해주 수미산과를 개창한 이엄(利嚴, 866~932) 등은 큰 활약을 하였다.

성주산과 개조인 무염은 무열왕의 8대손이고, 김인문의 7대손으로 고증조(高曾祖)까지는 장상(將相)으로 출입하며 장상호(將相戶)로 알려졌고, 조부 때 와서 진골관등으로는 최하위인 대아찬(大阿飡)에 머물러 있다가, 부(父) 범청에 와서 김현창의 반란에 연루되어 6두품으로 떨어진 가문의 인물이었다. 이것은 무염과 같은 왕족들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친족공동체에서 차츰 떨어져 방계화(傍系化)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니와, 중앙 지배층에서 몰락하여 충청도 연해 지방의 낙향 귀족이 되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주사가 개창된 보령지역에는 무염과 같은 계통으로 추측되는 선승들이 다수 보이는데 김씨로서 경주 귀족이었다가 남포에 낙향한 여염, 또 김씨로서 경주 귀족이었다가 충청도 서해안 지역에 낙향한 이엄 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충청 연해안 지역에는 김인문의 직계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낙향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장원을 근거지로 지방세력화 되고 있어서, 그 세력이 김현창의 난과도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있었고, 난 후에도 그 세력은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어 성주산문 개창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성주산문은 이런 낙향 귀족뿐 아니라 황해도 지방의 호족출신 대통(大通), 자인(慈忍), 전라도 지방의 호족출신 현휘(玄暉) 등 이성(異姓) 호족출신들도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성주산문 개창에 가장 큰 기반이 된 사람은 낙향귀족들과 동일친족집단에 속하며 보령지방에 장원을 가지고 있던 김흔(金昕)이었다. 김흔은 김인문의 차손으로 당시 세력 다툼을 벌였던 김양(金陽)과는 종형제간이었다. 김흔은 민애왕을 몰아내고 김우징(金祐徵)을 왕위에 앉히려는 장보고와 김양의 연합군인 청해진의 군병을 대구지방에서 방어하다가 패전하여, 그가 후원하던 민애왕이 살해되고 맞아 싸우던 김우징이 문성왕으로 즉위함에 곧 소백산으로 은퇴하여 산중재상(山中宰相)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김흔은 일찍이 무염과 함께 입당(入唐)한 적이 있으며, 무염이 돌아와 머무를 곳을 찾고 있을 때 자신과 동일 친족 집단들이 낙향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보령의 성주사에 주석하게 하여 성주산문을 개창하게 하였다. 이로서 성주산문의 개창은 이러한 토지와 인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성주산문의 개창과 발전에는 김흔 외에도 문성왕 현안왕 경문왕 현강왕 등과 그 측근들도 연결이 되지만 그 직접적인 기반은 김흔과 그 동일 친족 집단의 경제력과 세력이었던 것이다.

진골귀족의 몰락자나 6두품 이하 출신자들이 선종의 승려가 되어 지방 호족세력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면서 각처에서 사원 건립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신라하대에 들어와 중앙 귀족의 부패와, 문란한 수취로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던 서민 대중들이 선종사원에 적극 호응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선종이 어렵고 형식적인 경전에 의함이 없이

심전(心傳)만으로 불법을 전수하며, 문자와 논리성을 배격하고 최고의 고승일지라도 항상 노동하는 수행자세로 큰 호응을 얻은 데도 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방의 민심은 선종의 선승들이 좌우하게 되었고, 선종사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성주사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할 것이다.

大中(847-859) 초에 비로소 나아가 거주하고, 또 말끔히 정제하여 절을 꾸몄는 바, 얼마 되지 않아서 불도가 크게 행해지고, 절은 크게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의 먼 곳에서 학문하는, 길을 묻는 무리들이, 천리 길을 반 걸음으로 여기고 찾아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처럼 문도(門徒)가 번성하게 된 것은 대사께서 마치 종(鐘)이 쳐 주기를 기다리고, 거울이 고달픈 줄을 모르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이다. 찾아온 사람이면 혜소(慧炤)로써 그들의 눈을 이끌어주고, 법열(法悅)로써 그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음이 없었으며, 굳은 의지 없이 머뭇거리는 것을 깨우쳐 주고, 무지한 습속을 변화시켰다.

신라 왕실은 무너져가는 지배체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 중대와는 달리 선종을 포섭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이 시대의 선종이 지니는 기본적인 변혁의 논리 특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왕실은 선문의 유력자들을 국사(國師)나 왕사(王師)의 예로 만나기를 청하고, 그 산문을 공인하여 사액을 내리고 그 장원에는 면세특권을 인정해 주고, 때로는 직접 후원하여 새로운 산문을 설립하게 하기도 하고 선승이 죽은 후에는 왕명으로 시호를 내리고 탑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종 측에서는 일부 호응을 하기도 하였지만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성주산문의 무염 등을 비롯한 개조들은 신라왕실의 초청에 대하여 거절하기도 하고, 응하는 경우에도 소극적이어서 곧 산문으로 돌아가기를 즐겨하고 있었다.

후삼국 시대에 오면 보령지역은 견훤의 후백제 영역에 속했는데, 견훤이 선종에 관심을 보였으나 어디까지나 민심수습 차원이었고, 선종의 개혁사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성주산문을 비롯한 충청 전라도의 선종파들은 왕건에게 돌아갔다. 성주산파의 여엄과 현휘는 왕건에 의해 고려 수도 개경에 초빙되어 왕사의 대우를 받았으며, 이엄은 해주에 수미산문을 개창하고 왕건의 개혁적 정치를 크게 도왔다.

이렇게 볼때 신라 하대의 성주산문은 보령지역에 세력을 형성한 낙향 호족세력과, 억압 받던 백성들이 함께 변혁을 주도한 선종사상을 크게 발전시켜 고려왕조 개창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상 한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는 데 기여한 성주사는 고려시대에도 계속 융성

하였고,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 후 폐사되어 지금은 몇 개의 석조물과 그 유지(遺址)만 남아 그 옛날의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성주사지 가람배치 기본 형태는 남북선상을 축으로 하여 중문(中門), 탑(塔), 금당(金堂) 순으로 배치하여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국 특히 백제에서 유행한 양식이였다. 그런데 신라하대 성주사가 중창되면서 옛 백제의 가람배치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보령지방이 오랫동안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것과, 신라하대 사찰이나 탑과(塔婆) 조성에서 중앙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방호족의 영향으로 지방적 특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당 뒤에 위치한 3층석탑 3기는 일탑일금당 양식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시대적 혹은 교리적인 영향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론(詳論)하기 어렵다. 최근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어디선가 옮겨온 것으로 되어 있다.

성주사지에 있는 4기의 석탑은 모두 통일신라말기의 양식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앞에서 언급한 금당지 뒤의 3기 석탑은 그 배치의 파격성 때문에 일체시대에는 사리탑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최근 성주사사적기의 내용 확인으로 불탑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보 8호로 지정된 대남혜화상백월보광탑비는 왕명에 의하여 신라하대 대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이 글을 짓고, 최인연(崔仁浼, 고려 때의 崔彦擣)가 글을 쓴 것이다. 총 5,120자의 긴 문장으로 무염의 공덕, 행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진성여왕 4년(890)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에는 부도(승탑)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부도가 많이 만들어졌다. 신라 중대에는 화엄종이 유행하여 화엄세계의 거대한 논리와 질서 속에서 고승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었기에 교종계통 고승들의 부도탑은 만들지 않아 지금 남아 있지 아니한데, 당시 선종계통 고승들의 부도탑은 많이 만들어졌다. 본연의 마음이 부처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부처와 동일시될 수 있으며, 일문일가(一門一家)를 이룰 수 있다는 독립성의 의미가 강한 선종에서는 대선사(大禪師)의 죽음은 석가모니 못지않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대선사의 사리를 석가모니와 같이 예우하여 권위와 전통을 내세우게 되었고, 이에 부도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성주사의 무염대사도 입적 후인 890년경에 부도를 만들어 대남혜화상백월보광탑이라고 하고 성주산문의 상징과 권위로 삼았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1968년 성주사지 서쪽 산기슭에 그 파재(破材) 일부가 발견되어 탑비 옆에 옮겨 놓은 상태이다.



9세기 한반도